

한국문화교류 소식

32호 2019년 6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 (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ICKC의 초심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해



위 호 인
ICKC 이사장

존경하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회원 여러분! 오랜 시간 ICKC를 위해 헌신하셨던故 이광규, 박갑수, 조남철 세 분의 전 이사장님과 전영섭, 박원출 두 분의 감사님, 박의근 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 하셨지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본회 총재이시면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이신 조정원 박사님께서도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새롭게 ICKC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위호인입니다.

지난 3월 29일에 열렸던 ICKC 총회 및 이사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우선 회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 책무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부담감이 엇갈리는 요즘입니다.

ICKC는 올해로 창립 8주년을 맞았습니다. 저

문화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창(窓)입니다.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우리를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는 초대 홍보위원장으로 ICKC와 연을 맺었습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민족과 국가 간 친선 도모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고양을 목표로 ICKC 창립을 주도하셨던故 이광규 초대 이사장님의 뜻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립 당시부터 관여했던지라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8년 전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ICKC는 창립 초기부터 한국어와 태권도의 국제 교류와 세계화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10년 내 미국 1,000개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태권도를 배우게 한다는 원대한 목표로 기획했던 ‘Ten Thousand Project’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당시 모든 ICKC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누군가는 ICKC의 이러한 창립 이념을 거창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태권도를 비롯해 드라마, K-Pop 등 한국문화의 눈부신 성장과 전 세계적인 열풍을 보면서, 저는 ICKC가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고, 그 이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실감합니다.

한국어와 태권도는 우리의 정신이자 우리문화의 정수입니다.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는 전 세

계 209개 회원국에서 1억 명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인의 스포츠로 그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 또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어 반’을 개설한 외국 초중고교는 2011년 695곳에서 2018년 1309곳으로 88.3%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어와 태권도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눈부시게 성장 중입니다.

한국어와 태권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며, ICKC의 밝은 미래를 새삼 꿈꿔봅니다. 그 밝은 미래는 한국어와 태권도의 세계화를 열망했던 창립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어른들께서 닦아 놓은 길이 퇴색되지 않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CKC는 규모가 큰 단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국제 교류를 위한 성의와 열정은 여느 유력하고 큰 단체 못지않게 알차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 조정원 총재를 단체의 총재로 모시고 여러 임원진과 회원들께서 한국문화 교류와 융성을 위해 지난 8년간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어와 태권도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태권도 세미나 개최, 한국어와 태권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제 태권도 대회 참석, 난민과 불우한 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위한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등 한국어와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들의 노고와 애환을 기리기 위해 중국, 러시아, 독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국을 방문했습니다. 재외동포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비롯한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 및 문화탐방,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유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사님과 감사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문화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창(窓)입니다. 문화

를 교류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우리를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류 열풍에서 보듯 한국 문화는 이제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즐기는 세계인의 자산입니다. 이제 그 위상에 걸맞은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여 사랑받고 존중받는 문화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인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한국문화의 미래를 꿈꾸며, 우리 ICKC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성심성의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더없이 영광이겠습니다. 아울러 따끔하고 엄중한 질책 또한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되새기며 ICKC의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CKC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초심을 되새길 때이다. 사진은 지난 2011년 3월 ICKC의 창립대회 당시 모습. ICKC 초대 이사장인故 이광규 이사장께서 개회사 중이다.



특별 기고

2019 맨체스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료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이자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 및 ICKC 총재를 역임하고 계시는 조정원 총재께서 지난 5월 맨체스터에서 열렸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관한 글을 특별히 기고하셨습니다. 총재님은 이 글에서 대회의 이모저모를 상세히 알리고, 태권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뜻도 함께 표하고 계십니다. 옥고(玉稿)를 보내 주신 조정원 총재님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_ ICKC 사무국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ICKC 총재

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지 25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열린 제24회 맨체스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랭킹 포인트가 많으며,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올림픽 자동 출전권도 크게 좌우되는 대회였습니다.

2020년 7월 24일 개막되는 도쿄올림픽의 태권도 경기는 2020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지바현 지바시 마쿠하리 메세홀(Makuhari Messe Hall A)에서 개최됩니다. 태권도 경기가 올림픽 초반에 열리기는 도쿄올림픽이 처음입니다.

2019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총 147개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이 지난 1973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해온 최대의 축제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세계 태권도 최강자가 모인 가운데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경기장에서 성

국에서 953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태권도 발상지인 한국이 지난 2017년 대한민국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남녀 동반 종합 우승을 연속 차지했습니다. 지난 무주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역사상 가장 많은 총 183개국에서 1,768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남자 8개, 여자 8개 금메달이 걸려있는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에서는 한국 종합우승에 이어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뒤를 따랐고, 여자부에서는 한국에 이어 중국, 영국, 태국 그리고 터키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MVP의 영예는 한국의 장 준 선수와 영국의 제이드 존스 선수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지난 무주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 4일째 경기에 참관하고 직접 여자-49kg급 시상도 하여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5월 15일 오후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개막식에는 싱가포르 세르미양 능 IOC 집행위원과 마리오스 비저 국제유도연맹(IFJ)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필자는 세계태권도연맹 총



▲ 남자부 우승. 왼쪽부터 러시아, 한국, 조정원 총재, 아제르바이잔, 영국, 중국 (사진 : 세계태권도연맹)



▲ 조정원 총재의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 개막식 연설 (사진 : 세계태권도연맹)

재 자격으로 IFJ 회장과 태권도 전용 시설이 있는 요르단 아즈락 시리아 난민 캠프 공동 활용과 전 세계 난민 캠프에서 사용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의에 빠진 난민과 고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필자는 국제레슬링연맹, 국제탁구연맹 그리고 국제배드민턴연맹 회장과도 관련 MOU를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맨체스터 세계대회에는 현재 독일,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여자 1명을 포함한 4명의 난민 선수들이 참가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인류 사회에 대한 봉사과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무주 세계선



▲ 남녀 MVP. 왼쪽부터 장준, 조정원 총재, 제이드 존스 (사진 : 세계태권도연맹)



▲ 영국 맨체스터 버밀리온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총회 단체 촬영 (사진 : 세계태권도연맹)

수권대회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1명의 난민 선수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 결승전에는 세계선수권대회 최초로 100대의 4D 카메라를 센터 코트에 설치하여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태권도의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D 카메라 시스템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태권도 전 경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기간 중에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WT 선수위원' 남녀 각 2명 총 4명을 선정했습니다. 향후 4년간 동료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선정된 여자 선수위원은 중국의 우징위, 크로아티아의 니키타 글랜스노바치(Nikita Glasnovic), 남자 선수는 영국의 벤자민 하이네스(Benjamin Haines) 그리고 미국의 스테픈 람브딘(Stepehn Lambdin)입니다.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 개막 3일 전인 5월 12일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2019월드태권도콘퍼런스'(2019 World Taekwondo Conference)를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 국제 스포츠계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사회 발전을 위한

스포츠', '안전한 스포츠' 등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실시하여 세계선수권대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앞으로 지난 2007년부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에 개최해온 '국제태권도학술심포지움'과 'WT콘퍼런스'를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필자는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위호인 신임 이사장님 이하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기고를 통해서 지난 2018년 1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ICKC가 GCS International과 함께 캄보디아태권도협회에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등 저개발국 태권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계태권도연맹과 NGO 단체들의 태권도를 통한 인류 사회에 대한 봉사, 기여 활동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정원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정기총회 및 창립 8주년 기념 포럼

위호인 4대 이사장 선임, 2부 포럼서 '문화와 인격' 주제 강연과 실천 방안 논의

ICKC는 지난 3월 29일(금), 서울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정기 총회 및 “문화와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창립 8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부득이 참석 못 하신 회원들께도 총회 및 포럼의 취지 및 내용을 전해 드리기 위해, 당시 강연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세심히 보도한 『재외동포신문』의 기사를 전재(全載)합니다. 재외동포신문사 이형모 대표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ICKC 사무국

사단법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이하 ICKC)는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 역사관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 8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이 후원한 본 행사에는 박갑수 서울대 명예교수, 표재순 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전 국회의원,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등 6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남철 ICKC 이사장 개회사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와 2부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조남철 ICKC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이 세계태권도연맹과 ICKC의 총재를 겸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의 환영사를 대독했다. 이어서 2018년 ICKC 주요사업 및 회계결산, 2019년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이어 현재 임원진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임원진 선출 관련 의안이 상정됐다. 조남철 ICKC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7인이 사임하고, 회원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주)P&H 회장, 송종국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학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대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6인이 새로운 이사로 선출됐다.



ICKC 4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수락 소감을 말하는 위호인 신임 이사장

이어서 신임 이사회회의 의결을 통해 ICKC 초대 홍보위원장을 역임했던 위호인 이사가 ICKC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위호인 신임 이사장은 “초대 이사장이었던 고 이광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임 이사장들의 한국문화 교류에 대한 열정과 ICKC의 창립이념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여러 이사 및 회원들과 협력해 의미 있는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수락 소감을 밝혔다.



'2019년 ICKC-ADF 재외동포유학생 장학생'으로 선정된 최야나 학생(가운데)과 ICKC 임원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특별 순서로 ‘2019년 ICKC-ADF 재외동포유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ICKC가 아시아발전재단(ADF)과 함께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장학 사업은 국내 유학 중인 우수한 재외동포 학생의 학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차세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각계의 추천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된 최 야나(카자흐스탄 국적,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재학) 학생은 유창한 한국어로 ICKC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에서 학업을 잘 마쳐 한국문화를 알리는 훌륭한 문화콘텐츠 기획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년 세계태권도연맹(WT) 주요 사업을 보고하는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다음으로 2018년 세계태권도연맹(WT)의 주요 사업 보고가 있었다. 보고를 맡은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은 세계태권도연맹 창립 45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국제 난민 및 재난지역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권도박애재단(THF)의 인도적 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8년 9월 체결된 ‘세계태권도연맹-(재)아시아발전재단-(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ICKC’의 4자 업무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4개 단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뜻 깊은 활동을 수행하자는 조정원 총재의 말을 대신 전하며 보고를 마쳤다.

2부 포럼에서는 ‘문화와 인격’이라는 주제로 인성교육 전문가인 윤문원 작가의 강연이 있었다. 윤문원 작가는 현대사회를 “문화가 힘인 ‘소프트 파워’의 시대이자 스토리텔링과 감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규정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윤 작가는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 혁명은 세상을 큰 폭으로 바꾸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품기는 품격인 ‘기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현대사회에서도 개인의 수준은 문화적 소양, 품격, 인격과 같은 ‘소프트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부 포럼에서 '문화와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중인 윤문원 작가

윤 작가는 이어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은 곧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문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식, 지혜, 직관, 정보, 창의성의 다섯 가지 요소를 들어 설명했다. 이러한 조건을 염두에 두면서 인간만이 가진 문화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인격’이며, 배려, 존중, 정직, 책임, 예(禮), 효(孝), 협동, 정의 등의 인성 요소를 발현하는 사람이 곧 ‘인격자’이자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윤문원 작가는 강연을 마쳤다.



강연을 경청 중인 참석자들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문화적 수준이 곧 인격이라는 윤문원 작가의 논지에 공감을 표하며,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개인적 수양 및 이러한 인격과 품위를 갖춘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정치, 교육 등의 사회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천이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현수 기자, 2019.04.03



“응원박수에 울먹이다 발표 까먹어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축제

5월 14일 오후 제22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은 발표자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이들을 응원하는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900여 석을 꽉 채운 내외국인 관객들은 참석자들의 발표 내용에 공감하며 시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객석을 떠나지 않고 열띤 환호성을 쏟아냈다.

‘내겐 너무 특별한 한국’, ‘평화의 길, 더불어 사는 세상’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 다수는 세계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한국의 매력에 주목해 발표를 이어갔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발표자들의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고려인 4세 손이리나는 고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자신의 뿌리인 한국을 소개하며 파 뿌리를 흔들기도 해 청중들이 크게 웃었다. 대상은 ‘싸는 문화, 한국’을 주제로 발표한 후쿠시마 아키(일본)에게 돌아갔다.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에게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됐다. 대회 첫해부터 올해까지 70개국에서 1만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해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뽐냈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2019.05.14.



▲ '제22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본선에 오른 우즈베키스탄인 손이리나 씨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희재 기자, 2019.05.14.)



‘우리는 하나’ 한미 전군 친선 태권도 대회 ‘성황’

한미 양국 군인이 태권도로 우정을 다진 친선의 장이 펼쳐졌다. 5월 25일 경기 오산시 미군 공군기지 체육관에서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가 열렸다. 15년 전인 2004년 한국군 6군단과 미2사단과의 친선대회가 시작된 대회는 지금은 한미 전군이 참여하는 유일의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우리 군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한미군 측 미8군, 미2사단 등 각 군단과 사단 별로 선발된 1,000여명이 선수단이 참가해 양보 없는 승부를 펼쳤다. 대회 참가자들은 품새와 겨루기, 격파 높이 뛰어 차기 부문에서 경연을 펼쳐 챔피언과 우승부대를 선발한다.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며 “미국 등 전세계 209개국에서 1억5,000만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이번 태권도 대회를 통해 한미 동맹이 한층 굳건해지고,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옥 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 단장은 “태권도를 통해 한미 문화교류를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진흥재단 주최, 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 주관했으며, 국기원·미8군사령부, 한국Amway, PTP뉴서울채터 등이 후원했다.

[기사 출처]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 2019.05.25.



◀ 5월 25일 경기 오산시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2019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 개회식 장면 (사진 : 한국일보, 2019.05.25.)

■ 총회 및 창립 8주년 기념 포럼 성황리에 마쳐

지난 3월 29일(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 역사관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 8주년 기념 포럼이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그리고 위호인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신규 임원진 선출에 이어, ICKC 재외동포 학생 장학증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문화와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윤문원 작가의 강연이 있었다. 가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인격이 선행되어야 함을 새삼 깨달은 뜻 깊은 시간이었다.



■ 2019년 첫 문화탐방 - 낙산성곽 일대

지난 4월 18일(목), 2019년 ICKC의 첫 문화탐방으로 낙산성곽 일대를 탐방하였다.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서 시작해 한양도성박물관에서 도성의 역사, 문화를 살펴본 뒤, '서울의 몽마르뜨'라고 불리는 낙산성곽 일대를 따라 걷는 탐방이 이루어졌다. 한양도성박물관에서 도성의 역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사, 문화를 살펴보고, 도성 탐방로를 따라 서울 전경을 한눈에 담는 낙산공원 전망대 및 성곽 길을 지나 젊음과 낭만이 있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따라 걸으면서, 서울의 멋진 풍경과 덤으로 오랜 역사에 대해서도 익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 5월 문화탐방 - 경희궁, 경교장, 정동 일대

지난 5월 16일(목), 5월 문화탐방으로 '경희궁 및 정동' 일대를 탐방하였다. 경희궁과 서대문, 정동 일대는 한 말에서 일제강점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경희궁의 수려한 풍경과 정취를 감상한 뒤,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이자 숙소이며 암살의 아픈 역사도 담고 있는 경교장 탐방 후, 돈의문박물관마을 및 정동 일대를 답사하였다.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한 시대의 변화상을 둘러보기에 좋은 공간이자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호젓하게 걷기 좋은 길이었다. 황실 도서관이자 을사늑약이 체결되기도 했던 중명전을 특별히 방문하는 것으로 탐방을 마쳤다.



2019년 후원하여 주신 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명수,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홍석, 노승락, 류성식, 문영호, 박관용, 박기연, 박미화, 박원출, 박익근, 배대환, 성효동, 양경옥, 유영찬, 유지효, 윤문원, 윤윤식,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향구, 이효정,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순영,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추호식, 최춘이, 표재순, 허원준, 홍계화,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재)아시아발전재단, (주)P&H

(가나다순,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일 현재까지)

총액 : 21,08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산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원,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중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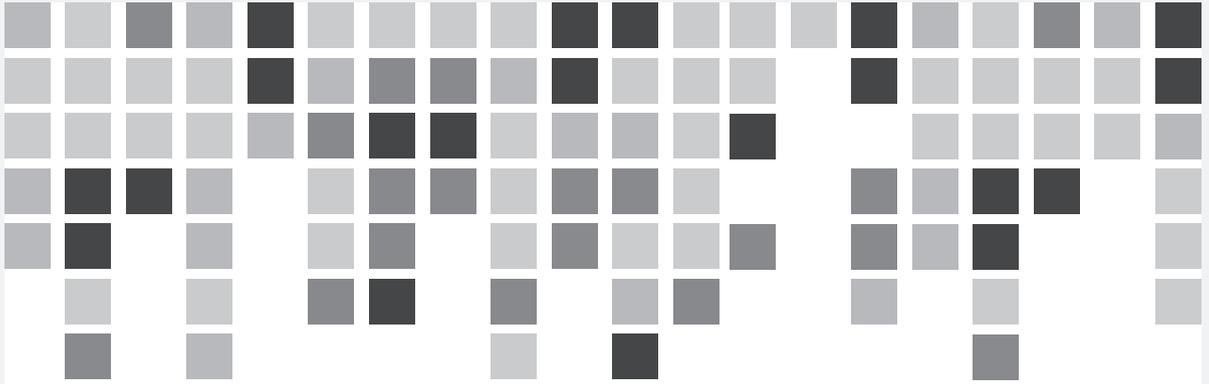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

Asia Development Foundat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교류와 협력 · 나눔과 상생

전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은 다시 아시아로! 라는 기치 아래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F

Asia Development
Foundation